

외서수입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유 정 선
〈증권서적 대표〉

目 次

I. 序 論

II. 本 論

1. 제도적인 문제점과 실태
2. 외국업체들의 문제점과 실태
3. 도서관인들의 전문성 부재와 문제점
4. 외서수입업자들의 문제점과 실태
5. 참고자료

III. 結 論

I. 서 론

세계는 지금 폭발적으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그만큼 고도화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 및 소비활동은 정보의 유통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확산되고 있다. 필연적으로 유통기구와 도서관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보폭발현상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 및 정보화사회에서는 외국 자료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학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필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도서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자료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한된 예산과도 관계가 된다.

외국자료에 대한 도서관의 선택적접근은 국내적인 유통체계와 연계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제적인 유통체계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대학도서관 및 연구도서관은 그 특성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 여타 부류의 도서관에 비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각종 출판물의 대형수요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90년대 한국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섬에 따라 각종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서수입산업의 시장개방도 필연적이다.

시장개방 측면에서 볼 때 외서수입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선진기업과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개방되지 않은 현재 정부, 국내대행사, 도서관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외국대행사들에 의한 외서수입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산업이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유독 외서수입산업만 담보 또는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해서 외서수입산업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인 문제점과 실태
2. 외국업체들의 문제점과 실태
3. 도서관인들의 전문성 부재와 문제점
4. 외서 수입업자들의 문제점과 실태
5. 참고자료

II. 본 론

1. 제도적인 문제점과 실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은 불온 및 미

풍양속을 위해 할 간행물에 대한 통제 및 규제수단으로 대외무역법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당시 문화공보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오늘날 문화체육부가 관장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이념전쟁은 끝났으며 세계는 경제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폐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73년에 만들어진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시대적 요구와 시장개방이라는 국제화의 요구로 그 당위성이 있다.

일본 대장성은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나 개입은 당장에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방충격의 완화 못지 않게 시장 개방을 국내 외서수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개선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대행사와 국내대행사를 똑같이 대우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며 대외 개방을 앞두고 경쟁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올해안에 UR 협상이 타결된다 하여도 유예기간을 거쳐 95년 상반기 또는 97년이나 실제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정부와 국내대행사 그리고 도서관인들이 힘을 합쳐 국내 외서수입시장을 서둘러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1)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 1) 실수요자는 \$ 1,000 미만인 경우 송금 및 통관이 자유로우나, 수입업자는 단1권도 수입추천을 요하고 있다.
- 2)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외국업체들에게 불법영업행위의 원인 제공이 되고 있다.
- 3) 실수요자가 외국대행사로 부터 구입할 경우 국내대행사가 출판사로 부터 받는 D.C를 실수요자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화가 그만큼 더 많이 유출되어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 4) 외국대행사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로 각종 세금 및 규제를 받지 않으며 국내대행사

는 각종 세금 및 규제대상이 되고 있어 국내 외업자간 「비대칭적」인 불공정 경쟁요인이 되고 있다.

(2) 수입추천

- 1) 수입추천제도는 국헌 및 공안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때문에 생겨난 군사문화시대의 산물이며, 세계는 지금 이념전쟁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전쟁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자기나라 기업 및 연구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수입추천은 전문수입업체에 대한 전문성을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추천으로 인한 수입기간 연장에 경비부담등이 외국대행사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입추천은 행정지침으로 대체하고 별칙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2) 수입추천시 원어 번역

원서를 하나 하나 번역한다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로 만들어진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간행물에 대한 법률 적용을 공정하게 하여 불법영업행위의 원인을 근절하며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자유 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말미암아 도서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외서수입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용증대 측면에서 현행제도를 외국대행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에 중점을 둔 신경제 원리에 맞게 특정 부문에 대한 특례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2. 외국업체들의 문제점과 실태

- (1) 문화체육부 미등록
- (2)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설립허가 미등록
- (3) 세무자료 미발생으로 세금포탈

외국대행사는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악용하여 주무부처와 수입업자 그리고 도서관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사실상의 시장개입으로서 국내시장의 상당부분을 이미 잠식하였으며 외국출판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국세 부문 등에 대한 문화체육부, 상공부, 재무부, 국세청 등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영업 및 탈세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나 어느 부처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 행정 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심각한 외서수입산업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대행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대행사는 국내에 세금 환포 안내고 기타 제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업자는 정상적인 세금과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국내외업자간 「비대칭적」인 불공정경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에서는 외국대행사와는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국내대행사에게는 입찰계약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외국대행사에게 구입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업자에게 구입하면 감사의 지적대상이 되며, 외국대행사들에게는 요구하지 못하는 가격증빙과 감사제도등의 불공정경쟁과 함께 여러부문에서 외국대행사보다 국내대행사가 규제 및 불공정거래 행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다국적 외국 도서유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전개를 이대로 방치하면 유통집중의 가속화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지배체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상적인 유통시장 질서확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일본의 경우 1969~75년까지 이루어진 시장개방에 있어서 주무부처와 도서관인 그리고 외서수입업자가 함께 협의기구를 만들어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개방은 이루어졌으나 소비자인 도서관에서 국내기업을 선택하여 자국의 외서수입산

업 보호에 앞장섰다. 약 18년이 지난 현재도 외국대행사가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대행사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대행사와 똑같이 정당하게 등록 및 법에 의한 공정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3. 도서관인들의 전문성 부재와 문제점

- (1) 사서의 전문인 의식과 사명감 부족
- (2) 소속장의 비전문적 도서관 정책
- (3) 입찰제도와 감사제도의 문제점

자료구입에 있어서 사서들보다 소속장들이 구입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사서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찰제도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관에서 많이 채택하는데 이는 납세자를 보호하며 공급자가 고객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입찰제도는 도서자료가 아닌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도서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도서관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가격만을 중시하는 입찰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우선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거의 보장받지 못하며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입찰이 최저가로 대행사를 선정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비용을 절감시킨 것 같으나 오히려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도서관의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게 만든다. 도서관에서는 입찰을 준비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된다.

우선 각 대행사에 보내는 서류상의 업무와 각각의 입찰결과를 모아 비교하는 작업 등은 상당한 시간과 업무의 복잡성을 수반하며 소모적인 것이다.

60년대 후반 미국도서관협회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입찰제도에 얼마이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Frankin Square-Mayfair

Subscription Agency Brochure of Services, 1968)

외국대행사들에게 구입할 경우 실무자들의 업무처리 시간이 과다소요되는 등 기타 경비가 국내대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대행사에게 구입하면 과표가 형성되어 세금(소득세 13.1%)으로 국고에 환입되거나 외국대행사에게 구입하면 외국본사와 실수요자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외화가 100% 송금되므로써 국내대행사가 외국출판사로 부터 D.C받을 수 있는 만큼 외화가 더 해외로 나가게 되어 국가적 손실(약 \$600만 추정 참고자료 3 참조)이 발생된다.

도서관의 구매 형태는 수서와 구매가 분리되어 있어 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수서정책을 수립하고 수서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외국간행물을 일반물품과 같이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인의 전문성이 배제되고 있다.

외국자료의 구입은 경제성과 적시성이라는 요건 외에도 보다 신중한 문화적 고려와 국가적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외국간행물의 수서와 구매는 도서관학 전문인의 안목으로 일관된 수서정책과 수서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대부분이 비전문 소속장의 정책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나 사서들의 개선의지는 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인들의 결연한 사명감으로서 전문인의 양식을 발휘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각 도서관별로 모든 주제분야의 수많은 자료를 완전하게 소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일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각 도서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 전산화는 중복투자되

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통일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통일된 도서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이용자와 국가예산 낭비를 축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전문화와 이용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전산망 구축을 위한 국가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한편 도서관인을 단순한 도서관리자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능별, 주제별, 자료별, 위치별 정보활동이 이용자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원으로서의 대우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4. 외서수입업자들의 문제점과 실태

- (1) 서비스개발 및 상품개발 부족
- (2) 인재육성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투자 미흡
- (3) 경쟁력 제고 및 대국적 사명감 결여
- (4) 업체간 커뮤니케이션 부족

외서수입업은 초기에는 백화점식으로 전문분야에 걸쳐 대량수입을 실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주된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신속한 대응능력 부족과 함께 외국대행사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외서수입산업의 폐해는 심각하다.

외서수입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상품개발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못한 것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둘째 과당경쟁으로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서비스개발 투자 및 인재육성에 투자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며, 셋째 최고 경영자들의 신경영기법 도입 및 외서수입산업에 대한 대국적 인식의 결여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넷째 업체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외국대행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외서수입산업에 심각한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대행사의 불법영업행위가 국내 외서수입산업에 주는 폐해가 심각한데도 정부나 업자의 대응전략이 전혀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국내대

행사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한 불신은 전체 국내대행사에 치명적 폐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국내의 중견대행사 중에는 꾸준한 노력으로 운송 서비스의 차별화 및 각종 리포트서비스 및 Computer Reservation System 등 첨단 도서 유통 시스템 운용으로 외국대행사에 비해 손색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도서관과 대행사의 유통관계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사서, 출판사, 대행사가 서로의 이익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An honorable and lasting peace library journal” (Edward F. Stevens 1917)

자신이 대학 도서관 사서일 때에는 대행사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서비스는 거의 해주는 것이 없다고 느꼈으나 스스로 대행업을 하게 되면서 대행사가 서비스와 비용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를 들 수가 있다. “Communication between vendors and librarians : The bookseller’s point of view” -Library Acquisitions 3 : 85 (Dimity S. Berkner 1979)

이와 같이 외서수입산업의 주체자인 국내대행사와 도서관은 사고 파는 유통상대자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인 협조자로서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서비스의 차별화 및

기술이다.

따라서 국내대행사는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및 서비스 기술개발과 기업의 국제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외국대행사들의 외서시장 잠식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대형화와 특정 부문에 주력하는 전문화 전략이라는 두가지 선택적 대안이 있다. 대형화는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가 가능한 반면 전문화는 전문화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선진 출판유통기법의 도입을 통해 업무영역 확대에 주력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할 것이며 외서수입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Computer Reservation System개발과 서비스 기술개발 투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기업도 상품개발 및 리포트의 효율화와 현재 외서수입산업의 취약부분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국내대행사도 양적인 팽창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유통구조 조정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국내 외서수입산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5. 참고자료

(1) 외국대행사와의 거래현황

외국대행사	지거래처	D.C율	Shipping & H.Charge	비 고
Academic Book Center	△대학교	5~10%	5~10%	Shipping & Handing Charge 로 5~10% 추가되어 실제로 D.C 효과가 없음.
UNI Books	○대학교	0	10%	정가 + 10%

외국대행사	직거래처	D.C율	Shipping & H.Charge	비 고
Academic Book Center	K연구소	0	6%	정가 + 6%

* 국내에서 약 10% 정도 별도 경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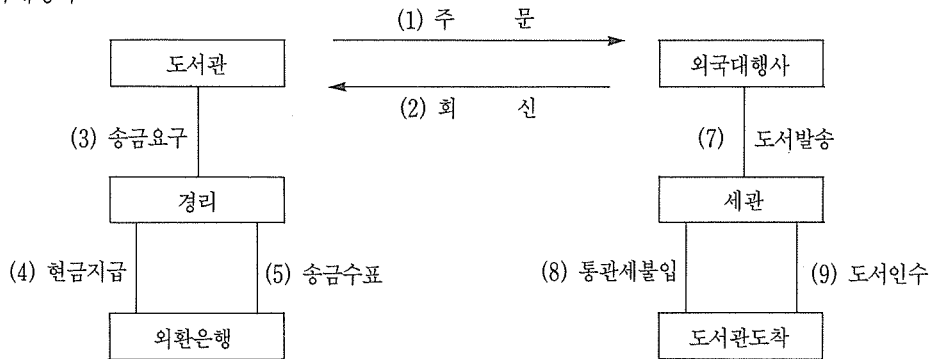
(2) 외국대행사 거래현황

단위 : 만불

직 구 입 처	거 래 금 액	손 실 금 액	비 고
국 . 사 립 대 학 교	\$ 1,500	\$ 300	약 70개 대학
연 구 도 서 관	\$ 1,000	\$ 200	약 60개
기 업 체 및 기 타	\$ 500	\$ 100	약 80개
계	\$ 3,000	\$ 600	약 210개 단체

(3) 구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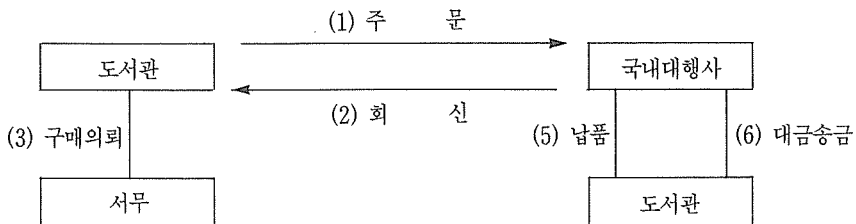
가. 외국대행사



@ 소요기일 : 2-6개월

* \$ 1,000이상 송금시 : 문화체육부 사전 수입추천을 받아야 함.

나. 국내대행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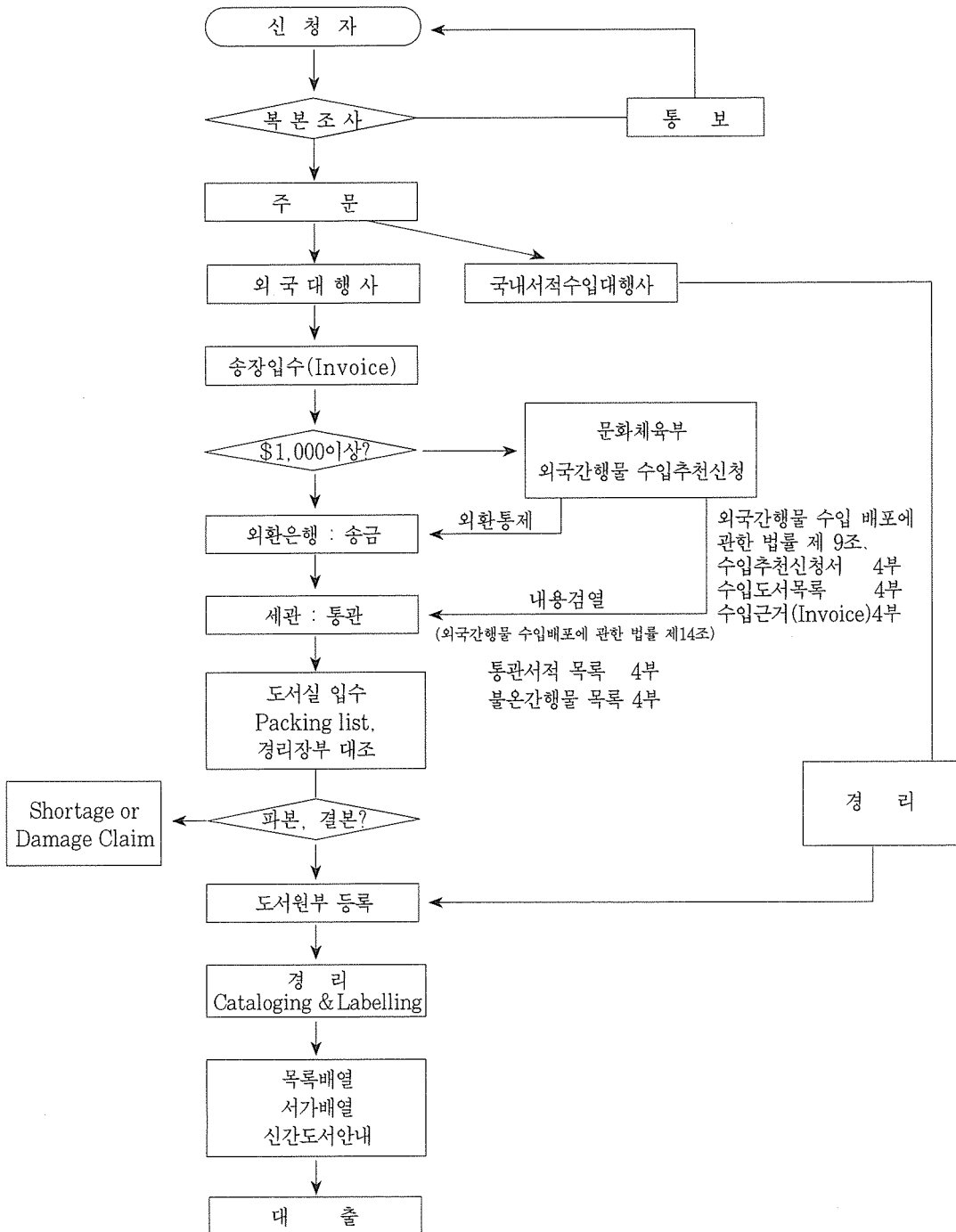


@ 소요기일 : 2-6개월

* 수입절차 및 경비는 국내대행사에서 부담

(4) 흐름도

외국간행물 구입 흐름도



(5) 국내대행사와 외국대행사의 도서 구매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국 내 대 행 사	외 국 대 행 사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 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가능하다. · 도서 가격 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다. · 도서 구매 절차가 간편하다. (통관절차 「수입승인, 통관, 운송절차검수」 신속) · 문제 도서의 반품이 가능하다. · 기타 부대경비가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공급이 약간 빠르다. · 업무진행에 대해 믿을 수 있다.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도서관인들은 국내대행사가 외국대행사에 비해 비싸고 느리다는 선입감을 갖고 있다. · 업무진행이 외국대행사에 비해 믿음이 가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 법령에 의한 법적처리가 불가능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서를 Invoice로 대체 (약식계약) 2. 수의계약 한도액으로 분할 집행 · 국내대행사에서 행하는(수입승인, 통관, 운송, 송금등) 복잡한 업무를 실무자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도서 가격의 원산지가격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 각국 화폐로 된 것을 외국대행사가 자국의 화폐로 바꿔 환산하여 Invoice를 작성하므로 가격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오류로 인하여 가격이 더 비싸질 수가 있다. · 도서 중복인수 및 문제도서(과본, 낙장등) 발생시 반송이 안된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 부대경기 추가 부담(우편, 환전료, 수입승인, 통관료, 운송료등)이 있다.

(6) 비용판단

가. 외국대행사

정가 + 제경비(정가의 약 15%)

* 제경비 : 우편료, 송금수수료, 통관세,

운반비, 인건비 등

나. 국내대행사

정가 + 제수수료(정가의 15~20%)

(7) 종합판단

구 분	외 국 대 행 사	국 내 대 행 사
구 입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 · 실무자 업무처리 시간과다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 · 실무자 업무처리 편리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경비 약 10~15%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3회 이상 사용 -직원 외부 업무처리로 외출(3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경비 일체 기본수수료에 포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재산정리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금 지급 만큼 도서인수 여부 대조 곤란 (Shortage Claim or Damage Cla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조서에 의거 확인편리

III. 결 론

앞으로 국경없는 경제전쟁 시대를 맞아 우리 국내 대행사가 수요자와 도서관의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개방으로 국제화된 시장에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외서수입산업이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난 자율과 창의가 유도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외국자료의 무비판적이고 비체계적인 수용은 국내의 문화적 가치에 깊은 영향을 과급시킬 수 있으며 자칫 정보매개의 해외 종속으로 결말지어 질 수 있다.

지금까지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외국대행사들의 불법영업에 조장하고 그 폐해가 외서수입산업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외업자간 「비대칭적」인 불공정경쟁 요인에 대한 시급한 개선 대책과 외국대행사와의 직거래로 인한 국가적 손실(약 \$ 600만)액은 외서수입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용증대 측면에서 현행제도를 외국대행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이에따라 정부 및 국내대행사와 도서관인이 주축

이된 협의기구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시장개방에 따른 외서수입산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같이 모색하고 협의하는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국내대행사도 양적인 팽창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통일성과 합리성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각 도서관 별로 중복투자되고 있는 전산화의 재정비를 통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정보중개처리 기능을 극대화 하도록 할 것이고 도서관의 전문화와 도서관 이용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일된 도서관 전산망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서관인들의 외서유통에 관한 교육과 도서관업무에 관해서 국내대행사 종사자들이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따라서 외서수입업체와 도서관은 유통 상대자가 아닌 협조자로서의 인식변화와 외서수입산업의 발전은 곧 도서관 문화와도 맞물려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외서수입산업의 궁극적 책임은 그 주체자인 외서수입업체와 도서관인에게 귀속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rochure of Services, 1968. Franklin Square-Mayfair Subscription Agency.
 Stevens. F. Edward, 1917. “An honorable and lasting peace”, Libaray Journal
 Berkner, S. Dimity, 1979. “Communication Between Vendors and librarians: The bookseller’s Point of view”-Library Acquisitions 3 : 85. (Dimity S. Berkner1979)